

특별기고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 강국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장시간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은 제조업성장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첨단제조파트너십', 일본은 '산업부흥전략'이라는 정책들을 내놓게 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 강국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장시간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은 제조업성장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첨단제조파트너십', 일본은 '산업부흥전략'이라는 정책들을 내놓게 되었다.

4차산업 제조업 프레임 바꾸다

그동안에도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혁신 2025'라는 전략을 통해 5천여 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고, 내년부터는 보다 확대하여 연간 3,500개를 공급할 예정이며 스마트공장 수준도 더욱 고도화 시키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는 작업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지역 중소 제조기업은 어떠한가.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을 방문해 보면 아직도 제조공정이 사람에 의한 수작업 라인이 대부분이며, 재고·유통관리 등도 수기로 하는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다. 전형적인 ICT 미적용의 모습이다. 이러한 공장 환경은 근로자의 작업피로도와 제품 불량률을 높임으로써 청년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됐다.

는 태도, 업무 프로세스, 작업과정 등 모든 면이 스마트해져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혁신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노력을 돕기 위하여 전남도에서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업에게 부담금을 낮춰줄 예정이다. 또한 기반구축이 안되어 스마트공장 설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기반구축 사업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전남 제조업 미래 변화 대비해야

아울러 스마트공장 컨설팅 센터를 구축하여 기반구축에서 고도화까지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보급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스마트공장은 우리지역 기업에 더 크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유연생산체제로 전환이 가능하여 매출액 증가를 통한 경영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강력하고 적극적인 청년대책 시급하다

광주·전남 청년 고용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아있는 청년들도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이경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21.2%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매년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광주가 9,1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전남은 9,402명으로 12.7% 늘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당장 개선해야

지난해 광주에서 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껏 작업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려다 보니 지금도 수거차량 발판에 위태롭게 매달려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잇단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환경미화원이 차량이 치어 숨진데 이어 서구에서도 50대 미화원이 쓰레기수거차 뒤편 호퍼(칼때기 모양 기계장치)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잇단 사고에 광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잇단 사망사고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고

광산형 아파트 조식서비스 '1석4조' 효과 기대



박현식
광산구 자치행정국장

아침밥상 차리기 쉽지 않은 시대다. 한 포털 국어사전을 보면 '차리다'의 첫 뜻은 '음식을 장만하여 먹을 수 있게 상 위에 벌이다'이다.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가다듬어 되찾다'란 풀이가 뒤를 잇는다.

아침밥은 수면 이후 혈당저하를 막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 일본국립암센터는 주2회 이상 조식이 뇌출혈 위험을 36% 줄인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여러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아침밥을 소홀히 여기는 이는 없을 터.

하면 고용도 늘릴 계획이란다. 아파트 단위로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을 도입해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결할 계획임도 밝혔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주민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라는 '1석4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지광장

뇌졸중 시간이 생명이다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속에 일교차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는 우리 몸의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의 발병빈도가 높아지게 한다.

이 나타났던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며, 환자가 토할 땀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막히지 않도록 한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절기에 특히 새벽 야외활동이나 운동을 피하도록 하며, 하루30분, 주3회 이상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한다.

기고

청소년기 허리통증, 부모님 관심 필요



서승권
동아병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찾은 수험생들이 심심치 않게 늘어나는 추세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수험생들인지만 육체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기보다는 최소한 지금의 허리통증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척추상태를 한번 짚는 체크 해보는 게 좋다.

보다 오래 앉아있을 때 더 잘 발생한다.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기 쉬우며 이때는 척추사이를 지탱하고 있는 추간판(디스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만성적인 추간판의 압력은 요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디스크의 조기 퇴행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로 디스크가 손상되면 조기에 퇴행성변화로 진행하므로 허리통증이 발생하면 운동을 당분간 삼가고 관찰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컴퓨터 앞에서 빼박한 자세로 몇 시간씩 게임을 하고 있다며 호소연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 공부든 게임이든 장시간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근육의 피로와 경직을 유발하므로 금물이다.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1989 and 2005) and a list of departments with phone numbers.

Table with 2 columns: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services like ambulance, fire, and police.